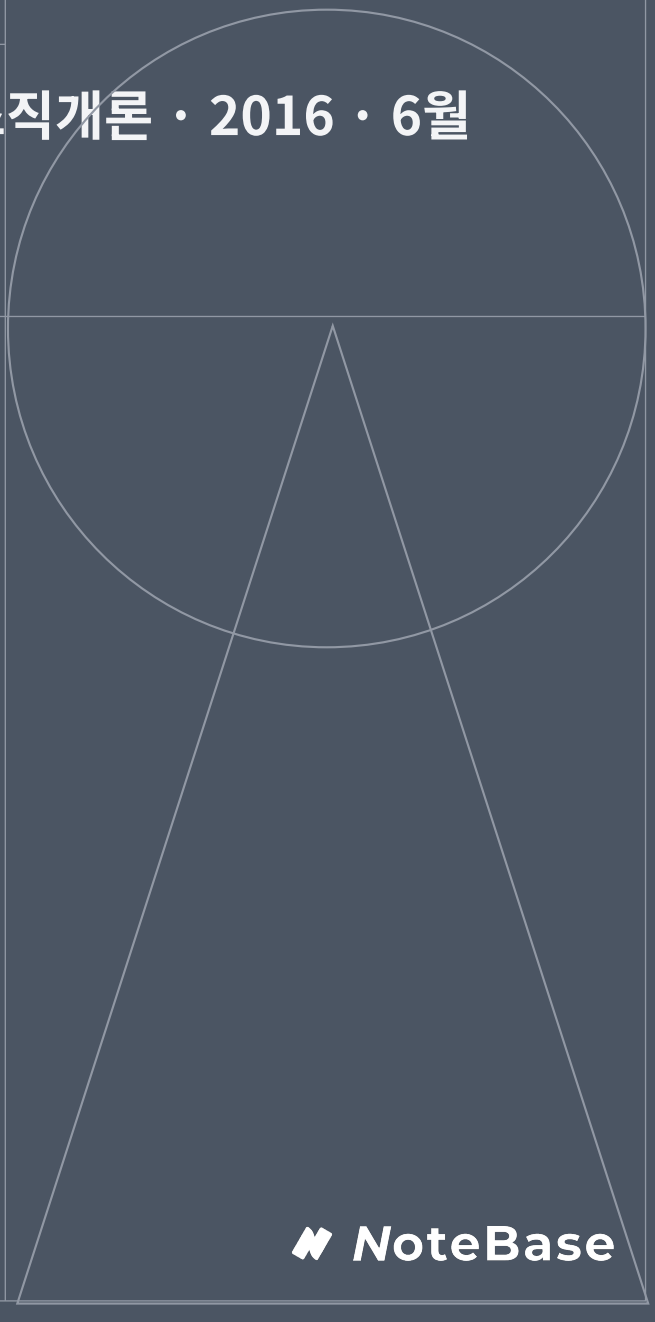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서울시/9급 · 자료조직개론 · 2016 · 6월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서울시/9급 · 자료조직개론 · 2016 · 6월

공무원/서울시/9급 · 자료조직개론 · 2016 · 6월

문 1. 다음 중 미국의회도서관분류법(LCC)의 주류 배열 순서에 따라 바르게 나열한 것은?

① Political Science → Education → Literature → Agriculture → Naval Science

② Political Science → Naval Science → Education → Literature → Bibliography

③ Geography → Language → Fine arts → Military Science → Law

④ Psychology → Language → Military Science → Music → Law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LCC의 주류는 **주류 기호의 알파벳순**으로 배열한다. 정치학 J, 교육학 L, 언어·문학 P, 농학 S, 해군학 V는 이 순서를 따르며, 영어 주제명의 첫 글자로 배열하는 것이 아니다.

NoteBase

올바른 순서

Political Science → Education → Literature → Agriculture → Naval Science

Political Science(정치학): 주류 기호는 J이다. LCC는 **영어 주제명이 아니라 주류 기호**의 알파벳순으로 배열하므로, 정치학 J는 교육학 L보다 앞선다.

Education(교육학): 주류 기호는 L이므로 정치학 J보다 뒤, 언어·문학 P보다 앞에 놓인다. 법학(Law)은 K이므로 **교육학보다 앞**에 있으며, 언어학이나 군사학 뒤에 법학을 놓은 배열은 순서가 맞지 않는다.

Literature(문학): 언어와 문학을 포괄하는 **P 주류**에 속한다. 음악(Music)은 M, 미술(Fine arts)은 N이므로 모두 P보다 앞선다. 따라서 Language 다음에 Fine arts를 놓거나 Military Science 다음에 Music을 놓은 배열은 주류 순서와 어긋난다.

Agriculture(농학): 주류 기호는 S이다. 언어·문학 P보다 뒤에 있고, 군사학(Military Science) U와 해군학 V보다 앞에 있으므로 문학보다 뒤에 농학을 놓을 수 있다.

Naval Science(해군학): 주류 기호는 V이므로 농학 S와 군사학 U보다 뒤에 놓인다. 특히 **교육학 L보다 뒤**이므로 해군학을 교육학 앞에 놓을 수 없다. 서지학(Bibliography)은 Z로, 해군학보다 더 뒤에 위치한다.

NoteBase

문 2. 다음 중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부여대상 자료로만 묶인 것은?

① 지도 - 점자자료 - 마이크로형태자료

② 인쇄된 도서 - 지도 - 전자게시판

③ 점자자료 - 지도 - 인쇄악보

④ 점자자료 - 마이크로형태자료 - 음악녹음자료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ISBN은 인쇄된 도서에만 부여하는 번호가 아니다. **지도·점자자료·마이크로형태자료**도 부여 대상이므로, 자료의 외형이 일반 책과 다르다는 이유로 제외하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① O: 지도, 점자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는 모두 ISBN 부여 대상이다. 점자자료는 내용을 점자로 표현한 출판물이고, 마이크로형태자료는 문헌 등을 축소 촬영하여 필름 등에 수록한 자료이다. ISBN 부여 범위는 **일반적인 인쇄 도서에 한정되지 않는다**.

② X: 인쇄된 도서와 지도는 부여 대상이지만, **전자게시판은 부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자게시판은 게시물이 계속 추가·변경되는 서비스로, 완결된 하나의 단행 출판물과 구별된다. 전자형식이라는 이유로 모두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단행본 성격의 전자책은 ISBN을 부여받을 수 있다.

③ X: 점자자료와 지도는 부여 대상이지만, **인쇄악보는 국제 ISBN 기준의 제외 자료**이다. 악보를 식별하는 국제표준번호는 ISMN(국제표준악보번호)이다. 따라서 인쇄된 자료라는 이유만으로 악보를 일반 도서와 동일하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

④ X: 점자자료와 마이크로형태자료는 부여 대상이지만, **음악녹음자료는 부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음악을 녹음한 자료와 책의 내용을 낭독한 오디오북을 구별해야 한다. 오디오북은 ISBN 부여 대상이지만 음악녹음자료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NoteBase

문 3. 다음 표는 리재철의 「한글순도서기호법」 <제5표>이다. 이에 따른 “이헌수 저, 한국교육의 이해”의 저자기호로 옳은 것은?

자음기호		모음기호			
		초성이 ㅊ이 아닌 글자		초성이 ㅊ인 글자	
ㄱ ㄲ	1	ㅏ	2	ㅏ(ㅐ ㅑ ㅒ)	2
ㄴ	19	ㅐ(ㅑ ㅒ)	3	ㅓ(ㅔ ㅕ ㅖ)	3
ㄷ ㄸ	2	ㅓ(ㅔ ㅕ ㅖ)	4	ㅗ(ㅘ ㅙ ㅚ ㅛ)	4
ㄹ	29	ㅗ(ㅘ ㅙ ㅚ ㅛ)	5	ㅜ(ㅝ ㅞ ㅟ ㅠ ㅡ ㅢ)	5
ㅁ	3	ㅜ(ㅝ ㅞ ㅟ)	6	ㅣ	6
ㅂ ㅃ	4	ㅡ(ㅢ)	7		
ㅅ ㅆ	5	ㅣ	8		
ㅇ	6				
ㅈ ㅉ	7				
ㅊ	8				
ㅋ	87				
ㅌ	88				
ㅍ	89				
ㅎ	9				

① 한9

② 이68

③ 이94

④ 한23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저자명 '이헌수'의 성 '이'를 쓰고, 이름 첫 음절 '헌'의 **ㅎ→9, ㅓ→4**를 차례로 붙이면 '이94'가 된다.

NoteBase

구성 요소별 해설

한글순도서기호법 제5표에서는 저자명의 첫 음절을 문자로 쓰고, 둘째 음절의 초성과 중성을 각각 숫자로 바꾸어 차례로 붙인다.

문자 부분: 저자 '이헌수'의 성인 **'이'를 그대로** 쓴다. 이 문항은 저자기호를 묻고 있으므로 책 제목 '한국교육의 이해'의 첫 글자 '한'을 쓰지 않는다.

자음기호: 저자명의 둘째 음절 '헌'에서 초성은 ㅎ이다. 표의 왼쪽 자음기호에서 **ㅎ에 대응하는 숫자 9**를 찾는다.

모음기호: '헌'의 중성은 ㅓ이다. 초성이 ㅎ이므로 '초성이 ㅊ이 아닌 글자' 열을 적용하며, 이 열에서 **ㅓ에 대응하는 숫자는 4**이다. 종성 ㄴ은 여기에 포함하지 않는다.

성 '이' 뒤에 자음기호 9와 모음기호 4를 순서대로 붙이면 '이94'가 되며, 이는 ③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4. 택소노미(taxonomy)와 폭소노미(folksonomy)에 대한 비교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구분: 개발/참여자, 택소노미: 권위를 가진 담당자, 폭소노미: 최종이용자

② 구분: 분류의 방식, 택소노미: 하향식(top-down), 폭소노미: 상향식(bottom-up), 양방향식

③ 구분: 분류의 특징, 택소노미: 협동적 분산 분류시스템, 폭소노미: 중앙집중적 분류시스템

④ 구분: 참여자 수, 택소노미: 소수, 폭소노미: 다수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③은 두 분류체계의 특징을 서로 바꾸어 놓았다. 택소노미는 담당자가 분류체계를 통제하는 **중앙집중적 분류시스템**이고, 폭소노미는 이용자들의 태그 부여가 모이는 **협동적 분산 분류시스템**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택소노미는 분류 권한과 전문성을 가진 담당자가 범주와 용어를 정하여 관리한다. 폭소노미는 **정보를 이용하는 최종이용자**가 자신의 표현으로 태그를 붙여 분류에 참여한다.

② O: 택소노미는 미리 정한 상위 범주 아래에 하위 범주를 두고 자료를 배치하는 **하향식**이다. 폭소노미는 개별 이용자가 붙인 태그가 모여 분류가 형성되는 **상향식**이며, 이용자들이 다른 사람의 태그를 참고하고 공유하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점에서 양방향식의 성격도 가진다.

③ X: 택소노미는 담당자가 정한 공통 기준에 따라 자료를 조직하므로 **중앙집중적 분류시스템**이다. 폭소노미는 여러 이용자가 각자 태그를 부여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므로 **협동적 분산 분류시스템**이다. 선지에 제시된 두 특징의 위치를 서로 바꾸어야 한다.

④ O: 분류체계의 개발과 관리에 참여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보면, 택소노미는 소수의 전문 담당자가 중심이 된다. 폭소노미는 **다수의 일반 이용자가 참여할 수 있는** 개방적 방식이다. 이는 전형적인 참여 구조의 차이이며, 모든 개별 자료에 반드시 많은 사람이 태그를 붙여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NoteBase

문 5. 동일한 분류번호에 속하는 저자들의 자료가 도서관에 다음 순서대로 입수되었다. 오른쪽의 <Cutter-Sanborn 세 자리 저자기호표>로 저자기호를 작성할 때 다음 (가)~(마)에 각각 알맞은 저자기호는?

J. Campbell	(㉮)	Camp	186
A. Campbell	(㉯)	Campbell	187
K. Campbell	(㉰)	Campbell, H.	188
L. Campbell	(㉱)	Campbell, M.	189
N. Campbell	(㉲)	Campbell, S.	191
		Campbell, W.	192

① (가): C187, (나): C1865, (다): C1875, (라): C1877, (마): C188

② (가): C187, (나): C1875, (다): C1877, (라): C1878, (마): C188

③ (가): C188, (나): C189, (다): C1895, (라): C1897, (마): C191

④ (가): C188, (나): C187, (다): C1885, (라): C1887, (마): C189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표에 정확히 일치하는 이름이 없으면 **알파벳순으로 바로 앞에 있는 항목의 기호**를 적용하므로 J. Campbell은 C188을 쓴다. 뒤에 입수된 K. Campbell과 L. Campbell도 기본 기호가 C188이므로, 먼저 부여한 기호를 유지하면서 **알파벳순을 보존하도록 숫자를 확장**한다.

NoteBase

빈칸별 해설

Cutter-Sanborn 저자기호는 성의 첫 글자와 표의 숫자를 결합하여 작성한다. 같은 성의 저자는 이름의 알파벳순까지 비교하며, 표에 정확히 일치하는 이름이 없으면 알파벳순으로 바로 앞 항목의 숫자를 적용한다. 동일한 분류번호에서 서로 다른 저자의 기호가 겹치면, 먼저 부여한 기호를 유지하고 새 기호에 숫자를 덧붙여 저자명의 알파벳순을 보존한다. 숫자 부분은 정수의 크기가 아니라 소수식으로 배열한다.

(가) J. Campbell: C188. Campbell, J.는 표의 Campbell, H.(188)와 Campbell, M.(189) 사이에 있다. **앞 항목인 H.의 188**을 적용하며, 가장 먼저 입수되어 아직 중복된 기호가 없으므로 C188을 그대로 부여한다.

(나) A. Campbell: C187. Campbell, A.는 표의 Campbell(187) 뒤이면서 Campbell, H.(188) 앞에 놓인다. 따라서 앞 항목의 187을 적용한다. 먼저 입수된 J. Campbell의 C188과도 겹치지 않으므로 기호를 확장할 필요가 없다.

(다) K. Campbell: C1885. K.도 H.와 M. 사이에 있으므로 기본 기호는 C188이지만, 이 기호는 이미 J. Campbell에게 부여되어 있다. J.보다 뒤에 배열되도록 **기존 C188에 5를 덧붙여** C1885로 확장한다. 중간 숫자인 5를 사용하면 이후 다른 저자를 앞뒤에 끼워 넣을 여유가 생긴다.

(라) L. Campbell: C1887. L. 역시 H.와 M. 사이에 있어 기본 기호 C188이 겹친다. L.은 K.보다 뒤이면서 M.보다 앞이므로, 이미 부여한 C1885와 표의 C189 사이에 들어가도록 C1887을 부여한다. **소수식 배열**에서는 C188, C1885, C1887, C189 순서가 되어 J.·K.·L.·M.의 알파벳순이 유지된다.

(마) N. Campbell: C189. Campbell, N.은 표의 Campbell, M.(189)와 Campbell, S.(191) 사이에 있다. 앞 항목인 M.의 189를 적용하며, 앞서 부여한 기호들과 겹치지 않으므로 C189를 그대로 사용한다.

이 다섯 저자기호의 조합은 ④와 일치한다.

NoteBase

문 6. 콜론분류법(CC)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암페르(A. M. Ampere)의 학문배열을 따르고 있어 역사학보다 수학이 먼저 배치되어 있다.

② 기본범주 중 주제를 형성하는 본질적인 속성은 [P], 소재는 [M], 기능은 [E]라는 패싯기호로 나타낸다.

③ 초판은 기본주제를 26개로 구성하고 4개의 보조표(공통세목, 지역구분, 연대구분, 언어구분)를 두었으며 콜론기호(:)를 사용하였다.

④ 제2판부터 [P], [M], [E], [S], [T]를 기본범주로 채택하고 각 기본주제 아래에 패싯공식도 설정하였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④의 '제2판부터 각 기본주제 아래에 패싯공식도 설정하였다'는 시기가 잘못되었다. 기본주제별 패싯공식을 제시한 것은 **제3판(1950년)**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콜론분류법은 암페르의 학문배열에 영향을 받아 주류를 **자연과학 → 인문과학 → 사회과학**의 순서로 배치하였다. 수학은 자연과학에, 역사학은 사회과학에 속하므로 수학이 역사학보다 앞선다.

② O: [P]는 Personality로 주제를 특징짓는 본질적인 속성이나 대상을, [M]은 Matter로 소재나 물질을, [E]는 Energy로 기능·작용·활동을 나타낸다. 패싯은 주제를 일정한 관점에서 나눈 측면이며, 이 기호들은 **각 측면이 어떤 기본범주에 속하는지**를 구분한다.

③ O: 초판은 **26개의 기본주제와 4개의 보조표**를 마련하였다. 보조표는 공통세목·지역구분·연대구분·언어구분으로, 여러 주제에 공통으로 적용할 세부 구분을 제공한다. 각 패싯의 기호를 결합할 때 콜론(:)을 사용한 데서 콜론분류법이라는 명칭이 나왔다.

④ X: 각 기본주제 아래에 패싯공식을 제시한 것은 **제3판(1950년)**이다. 패싯공식은 한 기본주제를 세분할 때 어떤 패싯을 어떤 순서로 결합하는지 정한 것으로, 주제의 측면을 기본범주로 구분하는 것과는 별개의 사항이다. 따라서 '제2판부터 패싯공식도 설정하였다'는 부분을 '제3판에서 각 기본주제 아래에 패싯공식을 설정하였다'로 고쳐야 한다.

NoteBase

문 7. 듀이십진분류법(DDC) 제23판의 다음 예에 따를 경우, 해당 자료와 분류기호의 연결이 옳은 것은?

314-319 General statistics of specific continents, countries, localities in modern world
Add to base number 31 notation 4-9 from Table 2, . . .

① 유럽의 일반통계자료 - 314

② 아프리카의 일반통계자료 - 315

③ 북미의 일반통계자료 - 316

④ 남미의 일반통계자료 - 317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제시된 지시는 기본기호 31 뒤에 제2보조표의 지역기호를 붙이라는 뜻이다. 유럽의 지역기호는 **—4**이므로 유럽의 일반통계자료는 **314**로 분류한다.

선지별 해설

제시문의 'Add to base number 31 notation 4-9 from Table 2'는 기본기호 31 뒤에 제2보조표의 해당 지역기호를 이어 붙이라는 지시이다. 여기서 지역기호 앞의 줄표는 보조표 기호임을 나타내며, 분류기호를 만들 때에는 숫자만 붙인다. 31과 지역기호를 산술적으로 더하는 것이 아니다.

① O: 유럽의 지역기호는 —4이다. 기본기호 31 뒤에 4를 붙이면 **314**가 되므로 유럽의 일반통계자료와 연결된다.

② X: 아프리카의 지역기호는 **—6**이므로 분류기호는 316이다. 선지의 315는 지역기호 —5를 붙인 것으로, 아시아의 일반통계자료에 해당한다.

③ X: 북미의 지역기호는 **—7**이므로 분류기호는 317이다. 선지의 316은 아프리카의 일반통계자료에 해당한다.

④ X: 남미의 지역기호는 **—8**이므로 분류기호는 318이다. 선지의 317은 북미의 일반통계자료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8. 한국십진분류법(KDC) 제6판의 다음 예에 따를 경우, “표제어가 스페인어인 스페인어-중국어사전”의 분류기호로 옳은 것은?

713.2-.9 2개국어사전
2개국어사전은 표제어에 분류하고 해설어를 국어구분의 기호를 사용하여 부가한다.

① 763.2
② 763.3
③ 773
④ 773.2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2개국어사전은 **표제어의 언어를 기준**으로 분류한 뒤 해설어의 국어구분 기호를 부가한다. 스페인어 사전의 기호 773에 중국어를 나타내는 2를 붙이면 **773.2**가 된다.

구성 요소별 해설

표제어에 따른 기본기호: 표제어는 사전에서 풀이의 대상이 되는 말이다. 이 사전은 스페인어 낱말을 중국어로 풀이하므로 표제어의 언어는 스페인어이다. 제시된 지시에 따라 **스페인어 사전의 기호 773**을 기본으로 삼는다. 763은 프랑스어 사전의 기호이므로 763으로 시작하는 후보는 이 조건에 맞지 않는다.

해설어에 따른 부가기호: 해설어는 표제어의 뜻을 설명하는 데 쓰는 언어로, 이 사전에서는 중국어이다. 국어구분표에서 **중국어의 기호는 -2**이므로, 기본기호 뒤에 부가할 숫자는 2이다. 표제어의 언어와 해설어의 언어를 구별하여 각각 기본기호와 부가기호에 반영한다.

기호의 합성: 기본기호 773 뒤에 소수점을 두고 중국어의 기호 2를 부가하면 773.2가 된다. 773만 쓰면 해설어가 중국어라는 조건이 반영되지 않는다. 두 언어의 역할을 모두 반영한 773.2는 ④의 기호와 일치한다.

NoteBase

문 9. 한국십진분류법(KDC) 제6판과 듀이십진분류법(DDC) 제23판의 적용방법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090'의 경우 KDC는 '향토자료', DDC는 '필사본 및 희귀본'을 분류하고 있다.

② '개인전기'는 KDC와 DDC 모두 도서관에 따라 '92' 또는 'B' 등으로 간략하게 분류할 수 있다.

③ '중등학교 화학교육과정'의 경우, KDC와 DDC 모두 370(교육학)에서 세분한다.

④ '인사관리'나 '재무관리'의 경우, KDC는 300(사회과학), DDC는 600(기술과학)에서 세분한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개인전기를 간략하게 분류하는 별법은 **KDC에서는 '99 또는 B'**, **DDC에서는 '92 또는 B'**이다. 두 분류법 모두 '92 또는 B'를 사용한다고 한 부분이 잘못되었다.

선지별 해설

① O: 같은 분류기호라도 분류법에 따라 나타내는 주제가 다르다. 090은 **KDC에서 향토자료, DDC에서 필사본 및 희귀본**을 나타낸다.

② X: 개인전기는 한 인물의 생애를 다룬 자료이다. 이를 간략하게 분류하는 별법으로 KDC는 **'99 또는 B'**를, DDC는 **'92 또는 B'**를 사용할 수 있다. KDC에서 전기는 990에 배치되어 있으며, 920은 유럽에 해당하므로 DDC의 전기 분류기호를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

③ O: '중등학교 화학교육과정'은 화학 지식 자체보다 **학교에서 화학을 가르치는 교육과정**을 다룬다. 따라서 KDC와 DDC 모두 370 교육학 아래에서 학교급과 교과 등 해당 내용에 따라 세분한다.

④ O: 경영 분야의 배치가 서로 다르다. KDC는 경영을 **300 사회과학 아래의 325**에 두고, 인사관리는 325.3, 재무관리는 325.8로 세분한다. DDC는 경영을 **600 기술과학 아래의 658**에 두므로 인사관리와 재무관리도 그 아래에서 세분한다.

NoteBase

문 10. 다음은 듀이십진분류법(DDC) 제23판의 일부이다. 이를 참고하여 다음 주제를 분류할 때 알맞은 분류기호는?

분류 주제: Canning red meat
641.4 Food preservation and storage
.41 Preliminary treatment
.42 Canning
.44 Drying and dehydrating
.45 Low-temperature techniques
.452 Cold storage
.453 Deep freezing
.46 Pickling, brining, smoking
.462 Pickling
.48 Storage
.49 Meat
.492 Red meat
Add to base number 641.492 the numbers following 641.4 in 641.41–641.46

① 641.42
② 641.492
③ 641.4922
④ 641.49242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합성지시는 기본기호 641.492에 통조림 처리 기호 641.42 중 **641.4 다음의 숫자 2만** 붙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붉은 고기의 통조림 처리'는 641.4922로 표현한다.

NoteBase

구성 요소별 해설

기본기호: 분류 주제 'Canning red meat'는 붉은 고기의 통조림 처리를 뜻한다. 제시된 표에서 붉은 고기(Red meat)는 641.492이므로, 합성지시에 명시된 **641.492를 기본기호**로 삼는다.

부가기호: 통조림 처리(Canning)의 기호는 641.42이다. 합성지시는 641.41–641.46에 속하는 기호에서 **641.4 뒤에 오는 숫자만** 가져오도록 한다. 따라서 641.42에서 공통 부분인 641.4를 제외한 2가 부가기호가 된다.

기호 합성: 기본기호 641.492 뒤에 부가기호 2를 붙여 641.4922를 만든다. 이는 붉은 고기라는 대상과 통조림 처리라는 보존 방법을 함께 나타내며, ③의 분류기호와 일치한다.

NoteBase

문 11. 다음 자료의 기본목록을 한국문헌자동화목록(KORMARC, 2014년도 개정판) 형식에 따라 목록레코드를 기술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지시기호 및 띄어쓰기는 제외한다.)

[표제면]	[판권지]
서양음악의 이해 단번에 기억하는 서양음악사 안나 허쉬 지음 허안나 옮김 길음사	1. 고대부터 중세까지 2. 르네상스부터 현대까지 서양음악의 이해(각권 ₩20,000) 초판 인쇄/2011년 2월 20일 초판 발행/2011년 2월 25일 지은이 / 안나 허쉬 옮긴이 / 허안나 발행인 / 홍길동 인쇄처 / 닮음인쇄소 발행처 / 길음사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홍제동 ISBN 11-123-4567-1(1) ISBN 11-123-4568-8(2)

① 020 ▼a1112345671 : ▼c₩20000

② 245 ▼a서양음악의 이해: 단번에 기억하는 서양음악사 / ▼d안나 허쉬 지음: ▼e허안나 옮김

③ 260 ▼a서울: ▼b길음사, ▼c2011

④ 505 ▼a1. 고대부터 중세까지 -- 2. 르네상스부터 현대까지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②는 표제관련정보를 구분하는 **▼b를 누락**했고, 저자와 번역자의 책임표시 사이에 쌍점을 사용했다. '단번에 기억하는 서양음악사' 앞에는 ▼b를 넣고, '허안나 옮김' 앞의 구두점은 **쌍반점(;)**으로 고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020 필드는 국제표준도서번호와 입수조건을 기술한다. ▼a에는 제1권의 ISBN '11-123-4567-1'에서 **하이픈을 뺀 1112345671**을 입력하고, ▼c에는 각권 가격인 ₩20000을 기술하므로 제시된 기록은 적절하다.

② X: 245 필드에서 ▼a는 본표제, ▼b는 표제관련정보, ▼d는 첫 번째 책임표시, ▼e는 두 번째 이하의 책임표시를 나타낸다. 표제면의 '서양음악의 이해'는 본표제이고, 이를 보완하는 '단번에 기억하는 서양음악사'는 **▼b로 구분할 표제관련정보**이다. 또한 '안나 허쉬 지음'과 '허안나 옮김'은 역할이 다른 책임표시이므로 그 사이에는 **쌍반점(;)**을 쓴다. 따라서 '245 ▼a서양음악의 이해 : ▼b단번에 기억하는 서양음악사 / ▼d안나 허쉬 지음 ; ▼e허안나 옮김'으로 고친다.

③ O: 260 필드는 발행·배포·간사사항을 기술하며, ▼a는 발행지, ▼b는 발행처, ▼c는 발행년이다. 판권지에서 확인되는 발행지는 서울, 발행처는 길음사, 발행년은 2011년이므로 각 식별기호와 내용이 일치한다. 발행처인 길음사를 적으며, **인쇄처인 닮음인쇄소와 구분**한다.

④ O: 505 필드는 내용주기로, 종합표제 아래에 있는 **각 권의 표제**를 기술할 수 있다. 판권지의 제1권 '고대부터 중세까지'와 제2권 '르네상스부터 현대까지'를 권차와 함께 ▼a에 기록하고, 두 항목을 두 줄 붙임표(--)로 구분한 기본형 기술이다.

NoteBase

문 12. 한국문헌자동화목록(KORMARC) 서지레코드 구성요소 중 리더(Leader)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레코드 처리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이터 요소이다.

② 데이터 요소는 숫자 또는 부호값을 나타내며 자릿수에 의해 구분된다.

③ 리더는 24개의 자리로 고정되어 있으며 KORMARC 레코드의 첫 번째 필드이다.

④ 한 레코드에서 각 가변길이 필드의 표시기호, 필드길이, 필드 시작 위치를 나타내는 일련의 항목이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④의 '각 가변길이 필드의 표시기호, 필드길이, 필드 시작 위치를 나타내는 일련의 항목'은 **디렉토리**의 설명이다. 리더는 레코드 전체의 처리에 필요한 정보를 담는 **24자리 고정길이 필드**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리더는 컴퓨터가 **레코드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레코드 전체의 길이, 레코드 상태, 레코드 유형 등이 이에 해당한다.

② O: 리더의 데이터 요소는 숫자 또는 부호값으로 표현되며, **정해진 자수위치**에 따라 의미가 구분된다. 예를 들어 자수위치 00–04에는 레코드 길이를, 05에는 레코드 상태를 기록한다.

③ O: 리더는 자수위치 00–23의 **24자리로 고정**되며 레코드의 맨 앞에 놓인다. KORMARC 서지레코드는 리더, 디렉토리, 가변길이 필드 순으로 구성된다.

④ X: 각 가변길이 필드의 표시기호, 필드길이, 필드 시작 위치를 기록하는 것은 **디렉토리**이다. 디렉토리는 각 필드를 식별하고 그 길이와 위치를 찾아갈 수 있게 한다. 따라서 이 설명의 대상은 리더가 아니라 디렉토리로 고쳐야 한다. 리더가 레코드 전체의 처리 정보를 제공하는 데 비해, 디렉토리는 개별 가변길이 필드의 길이와 위치 정보를 제공한다.

NoteBase

문 13. AACR2R을 기준으로 표목을 선정할 경우 개인명이 기본표목이 되는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대표저자가 없는 3인까지의 공저서는 먼저 기술된 저자를 기본표목으로 한다.

② 개작이나 각색을 한 도서는 원저자를 기본표목으로 한다.

③ 주석이나 해석이 강조된 도서는 원저자를 기본표목으로 한다.

④ 번역도서인 경우에는 번역자를 기본표목으로 한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AACR2R에서는 **대표저자가 없는 2~3인의 공저서**를 먼저 기술된 저자명 아래에 기본기입한다. 나머지 공저자는 부출하여 다른 저자명으로도 찾을 수 있게 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대표저자가 따로 표시되지 않은 2~3인의 공저서는 **먼저 기술된 저자**를 기본표목으로 선정하고, 나머지 저자들은 부출한다. 따라서 저자들의 책임이 동등하더라도 서지기입의 기준이 되는 저자명은 기술 순서에 따라 정한다.

② X: 개작이나 각색을 한 도서는 원저자가 아니라 **개작자나 각색자**를 기본표목으로 선정한다. 소설을 희곡으로 바꾸는 것처럼 기존 저작을 새롭게 구성한 사람에게 해당 개작물의 책임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원저작은 저자명과 서명을 결합한 부출로 연결한다.

③ X: 주정보원에서 주석이나 해석이 강조된 도서는 **주석자나 해석자**를 기본표목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목록 작성의 중심은 원문 자체보다 그 원문에 대한 주석·해석이다. 반대로 원저작의 판으로 제시되고 원문이 강조되면 원저작에 적합한 표목으로 기본기입하고 주석·해석은 부출한다.

④ X: 일반적인 번역도서는 번역자가 아니라 **원저자**를 기본표목으로 선정한다. 언어를 바꾸어도 원저작에 대한 책임은 원저자에게 있기 때문이다. 번역자는 필요한 경우 부출하며, 개작을 수반하거나 자유번역으로 제시된 자료는 일반 번역과 구별하여 개작 규칙을 적용한다.

NoteBase

문 14. 다음은 “헤밍웨이가 지은 미국 소설 노인과 바다”의 한국문헌자동화목록(KORMARC) 데이터이다. (가)~(다)에 각각 들어갈 표시기호(Tag)로 옳은 것은? (단, 띄어쓰기는 제외한다.)

㈎		▾a843.5 ▾25
082	01	▾a813.54 ▾221
245	00	▾a노인과 바다 / ▾d어니스트 헤밍웨이 지음 ; ▾e장경렬 옮김
㈏	19	▾aOld man and the sea
300		▾a197 p. : ▾b천연색삽화 ; ▾c22 cm
㈐		▾a원저자명: Ernest Hemingway

① (가): 052, (나): 246, (다): 500

② (가): 052, (나): 248, (다): 505

③ (가): 056, (나): 246, (다): 500

④ (가): 056, (나): 248, (다): 505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분류기호와 분류표의 판을 적는 필드는 **056 한국십진분류기호**이다. 번역서의 원표제는 **246 여러 형태의 표제**에, 원저자의 원어명에 관한 주기는 **500 일반주기**에 기술한다.

빈칸별 해설

(가) 056: '▾a843.5▾25'에서 ▾a는 이 자료의 KDC 분류기호 843.5를, ▾2는 적용한 KDC의 판을 나타낸다. 따라서 '▾25'는 25라는 값이 아니라 **식별기호 ▾2와 판표시 5**로 읽으며, KDC 제5판을 적용했다는 뜻이다. 이처럼 한국십진분류기호를 기술하는 표시기호는 056이다. 052는 국립중앙도서관 청구기호를 기술하는 필드이므로 구별한다.

(나) 246: 'Old man and the sea'는 번역서 '노인과 바다'의 **원표제**이므로 '여러 형태의 표제' 필드인 246에 기술한다. 뒤에 주어진 지시기호 19에서 제1지시기호 1은 주기와 표제부출을 모두 생성한다는 뜻이고, 제2지시기호 9는 원표제임을 나타낸다. 따라서 이 행은 '246 19'로 구성된다.

(다) 500: '원저자명: Ernest Hemingway'는 원저자의 이름을 원어로 알려 주는 **일반주기**이므로 500에 기술한다. 500은 별도의 특정 주기 필드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정보를 기록하는 필드이다. 505 내용주기는 자료에 수록된 개별 저작의 표제와 책임표시 등을 기술하는 데 쓰이므로, 여기의 원저자명 주기와는 구별된다.

(가) 056, (나) 246, (다) 500의 조합은 ③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15. 다음은 “서명: 주홍 글씨; 저자: N. 호돈 지음; 차영은 옮김; 발행처: 육문사; 발행연도: 1995”의 한국문헌자동화목록(KORMARC) 데이터이다. 밑줄 친 부분 중 옳지 않은 것은? (단, 띄어쓰기는 제외한다.)

<보기>

245 00 ☒a주홍 글씨/ ☒dN. 호돈 지음; ☒e차영은 옮김

260 ☒a서울: ☒b육문사, ☒c1995

300 ☒a272 p.; ☒c23 cm

700 1 ☒aNathaniel Hawthorne, ☒d1804-1864 ☒0KAC199611832

700 1 ☒a차영은, ☒e옮김

① ☒a주홍 글씨/ ☒d

② 260 ☒a서울: ☒b육문사, ☒c1995

③ ☒aNathaniel Hawthorne, ☒d1804-1864

④ 700 1 ☒a차영은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③의 개인명 표목은 이름과 성의 순서가 뒤바뀌었다. 성으로 시작하는 서양인명 표목은 **'성, 이름' 순서**로 기술하므로 'Nathaniel Hawthorne'을 'Hawthorne, Nathaniel'로 고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245 필드에서 ☒a는 본표제, ☒d는 첫 번째 책임표시를 나타낸다. 본표제 '주홍 글씨' 다음에 **빗금(/)을 두고 첫 번째 책임표시**인 'N. 호돈 지음'을 ☒d로 연결한 기술이다. 저자와 역할이 다른 번역자 '차영은 옮김'은 쌍반점(;) 뒤의 ☒e로 구분한다.

② O: 260 필드는 발행사항을 기술하며, ☒**a는 발행지,** ☒**b는 발행처,** ☒**c는 발행년**을 나타낸다. '서울', '육문사', '1995'가 각각 해당 식별기호에 알맞게 들어갔다. 발행처 앞의 쌍점(:)과 발행년 앞의 쉼표(,)도 올바르다.

③ X: 700 필드의 제1지시기호 '1'은 성으로 시작하는 이름을 뜻한다. Nathaniel은 이름이고 Hawthorne은 성이므로, ☒a의 개인명은 **'Hawthorne, Nathaniel'로 도치**해야 한다. 따라서 밑줄 부분은 '☒aHawthorne, Nathaniel, ☒d1804-1864'로 고친다. ☒d에 생몰년을 기록한 것은 올바르며, 오류는 개인명의 배열에 있다.

④ O: 700 필드는 개인명을 통한 추가 검색 접근점인 부출표목을 기록한다. 번역자 차영은도 **개인명 부출표목**으로 기록할 수 있다. '차영은'은 성 '차'로 시작하므로 제1지시기호 '1'을 사용하고, 개인명은 ☒a에 기록한다. 이어지는 ☒e의 '옮김'은 번역자의 역할을 나타낸다.

NoteBase

문 16. 한국문헌자동화목록(KORMARC)에서 국제표준도서번호(ISBN)를 나타내는 필드는?

① 012

② 020

③ 044

④ 056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KORMARC에서 **020 필드**는 국제표준도서번호(ISBN)를 기록하는 항목이다.

공통 해설

KORMARC는 서지정보를 항목별 필드로 나누고, 세 자리 표시기호로 각 필드에 담기는 정보의 종류를 구분한다. 국제표준도서번호(ISBN)는 도서를 식별하는 표준번호이며, 이를 기록하는 필드의 표시기호는 **020**이다. 즉, 020은 필드의 종류를 나타내고 실제 ISBN은 그 필드 안에 기록된다.

NoteBase

문 17. 다음 중 더블린 코어(Dublin Core)의 기본 요소가 아닌 것은?

① Description

② Format

③ Rights

④ Organization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Organization은 더블린 코어의 **기본 15개 요소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관이나 조직이 자원의 작성자·발행자가 될 수는 있지만, 이를 기록하는 요소명은 Creator·Publisher이다.

공통 해설

더블린 코어는 자원을 기술하기 위한 메타데이터 요소 집합이다. 기본 요소는 Title, Creator, Subject, Description, Publisher, Contributor, Date, Type, Format, Identifier, Source, Language, Relation, Coverage, Rights의 15개이다.

Description·Format·Rights는 이 기본 요소 목록에 포함되지만, **Organization은 기본 요소명이 아니다**. 여기서 요소는 자원의 어떤 속성을 기록할지 정한 항목이며, 그 항목에 들어가는 값과 구별된다. 예를 들어 어떤 기관이 보고서를 작성했다면 Creator 요소에 그 기관명을 기록할 수 있다. 기관이 작성 주체라는 사실이 Organization이라는 별도의 기본 요소가 있다는 뜻은 아니다.

NoteBase

문 18. 다음 자료에 기재된 발행사항을 한국목록규칙(KCR) 제4판에 따라 기술하고자 한다. 바르게 기술한 것은?

발행지 : 황셩
발행처 : 靑丘文化社刊行
발행년 : 檀紀四二八九년 二月八日發行

① 황셩[서울] : 靑丘文化社, 檀紀4289[1956]
② 서울특별시 : 靑丘, 檀紀4289[1956년]
③ 황셩 : 靑丘文化社刊行, 1956
④ 서울 : 靑丘文化社판(版), 檀紀4289(1956)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발행지의 옛 표기 '황셩'은 보존하고 현재 지명을 각괄호로 덧붙여 **황셩[서울]**로 적는다. 발행처에서는 역할어 '刊行'을 생략하며, 발행년은 단기를 유지하고 서기년을 각괄호에 보충하여 **檀紀4289[1956]**으로 기술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발행지는 자료의 표기인 '황셩'을 그대로 적고, 현재 통용되는 지명 '서울'을 각괄호에 보충한다. '靑丘文化社刊行'에서는 발행처명 '靑丘文化社'를 남기고, 발행 역할을 나타내는 **'刊行'은 생략**한다. 발행년은 한자 숫자를 아라비아 숫자로 바꾸어 '檀紀4289'로 적고, 환산한 서기년 '[1956]'을 덧붙인다. 월·일과 '년', '發行'은 적지 않으므로 제시된 기술은 세 요소의 표기 규칙에 맞는다.

② X: 발행지를 자료에 없는 '서울특별시'로 바꾸면 원래 표기인 '황셩'이 사라진다. **원래 지명을 유지하고 현재 지명을 보충**하여 '황셩[서울]'로 고쳐야 한다. 발행처도 고유 명칭의 일부인 '文化社'를 임의로 줄이지 않고 '靑丘文化社'로 적는다. 발행년에는 날짜 단위어 '년'을 붙이지 않으므로 '檀紀4289[1956년]'은 '檀紀4289[1956]'으로 고친다.

③ X: 발행지에는 현재 지명을 보충하여 '황셩[서울]'로 적고, 발행처의 역할어 '刊行'은 생략하여 '靑丘文化社'로 적는다. 발행년은 자료에 표시된 단기를 서기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단기를 보존하고 환산한 서기년을 병기**한다. 따라서 '1956'만 적은 부분은 '檀紀4289[1956]'으로 고쳐야 한다.

④ X: 발행지는 원래 표기인 '황셩'을 남겨 '황셩[서울]'로 적어야 한다. 발행처에는 자료에 없는 '판(版)'을 덧붙일 근거가 없으므로 '靑丘文化社'로 고친다. 단기를 서기로 환산해 보충하는 경우에는 **원괄호가 아니라 각괄호**를 사용하므로 '檀紀4289(1956)'은 '檀紀4289[1956]'으로 고친다.

NoteBase

문 19. FRBR(Functional Requirements for Bibliographic Records)의 개념과 구조에 따를 경우, 다음 밑줄 친 부분은 어떤 개체(entity)에 해당하는가?

– Hamlet / by W. Shakespeare
– Hamlet / published by W. Shakespeare
– 햄릿 / 김종환 역 (해당번역 전체)
– 햄릿 / 김종환 역, 대구: 태일사, 1999 (출판된 해당책 전체)
– K대에 소장된 햄릿 / 김종환 역, 대구: 태일사, 1999 (해당 책의 낱권)
– 햄릿 공연 DVD(햄릿 / 김종환 역, 대구: 태일사, 1999를 기반으로 함)

① expression
② manifestation
③ presentation
④ work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밑줄은 번역 내용 자체가 아니라 태일사가 1999년에 출판한 책 전체를 가리킨다. 표현형이 특정한 출판 형태로 구현된 **구현형(manifestation)**에 해당한다.

공통 해설

FRBR의 구현형(manifestation)은 번역문과 같은 표현형이 책 등의 **물리적 매체에 구현된 것**이다. 이때 지적 내용과 물리적 형식이 같은 출판물들을 하나의 구현형으로 파악한다. 따라서 창작물이나 번역 내용 자체를 식별하는 것과 구별된다.

밑줄은 김종환의 번역을 대구의 태일사가 1999년에 출판한 책 전체를 지칭하므로 구현형(manifestation)에 해당한다. '김종환의 번역'이라는 내용뿐 아니라 출판지·출판사·출판연도가 특정된 출판물을 가리킨다는 점이 판단 근거이다. 여기서 '전체'는 **같은 출판 특성을 공유하는 책들의 집합**을 뜻하며, K대가 소장한 특정 낱권인 개별자료(item)와 구별된다.

NoteBase

문 20. 다음은 MODS(Metadata Object Description Schema)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ㄱ. MARC, DC(Dublin Core) 등을 절충하여 상호운용성과 정밀성을 모두 만족시킨 서지정보 표준 메타데이터이다.
ㄴ. 다양한 정보는 물론 웹사이트에 수록된 공개 자료와 전자 매체까지 표현이 가능한 메타데이터 표준이다.
ㄷ. 확장 가능하도록 비구조화된 메타데이터 세트이므로 별도의 메타데이터 요소를 정의할 필요가 있다.
ㄹ. MARC 필드의 일부분을 포함하고, 언어형식의 태그를 사용한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ㄱ, ㄴ, ㄷ, ㄹ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MODS는 MARC보다 간결하면서 Dublin Core보다 상세한 서지 기술을 제공한다. 확장할 수 있다는 것이 비구조화되었다는 뜻은 아니며, **XML 스키마로 요소와 하위요소가 정의된 구조화된 메타데이터**이다.

NoteBase

보기별 해설

ㄱ. O: MODS는 **MARC의 상세함과 Dublin Core의 간결함 사이**에 위치하는 서지정보 메타데이터 표준이다. MARC의 주요 서지 요소와 의미를 수용하면서 전체 MARC보다 단순하게 구성하고, Dublin Core보다 풍부하게 자원을 기술하여 정보 교환의 편의와 기술의 정밀성을 함께 추구한다.

ㄴ. O: MODS의 기술 대상은 인쇄자료에 한정되지 않으며 **웹 자원과 전자 매체도 포함**한다. 표제·저자·주제 같은 서지정보뿐 아니라 전자적 형식과 온라인 접근 위치도 기록할 수 있으므로 웹사이트의 공개 자료도 기술할 수 있다.

ㄷ. X: MODS는 비구조화된 메타데이터 세트가 아니라 **XML 스키마에 따라 구조화된 메타데이터**이다. 주요 요소, 하위요소, 속성이 이미 정의되어 있으므로 이용할 때마다 메타데이터 요소를 별도로 정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확장 가능성과 기존 요소의 구조화 여부를 혼동한 설명이다.

ㄹ. O: MODS는 **MARC 필드의 일부를 수용**하고, 숫자 코드 대신 의미를 알아보기 쉬운 언어형식의 태그를 사용한다. 예를 들어 titleInfo와 name처럼 요소의 내용을 짐작할 수 있는 이름을 쓰므로 MARC의 숫자 태그보다 사람이 이해하기 쉽다.

옳은 보기는 ㄱ, ㄴ, ㄹ이며, 이 조합에 해당하는 선택지는 ②이다.

NoteBase